

●연중 제 27주일 강론

임진왜란 때 영의정까지 지냈던 ‘해학의 현신 이항복(1556~1618)’은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그중 장인 권율을 속여 폭소를 자아낸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장인 권율이 사위 이항복과 함께 입궐하게 되었는데 이항복은 장인에게 날씨가 몹시 더우니 버선을 벗고 신을 신고 입궐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합니다.

사람 좋은 권율은 사위 말만 믿고 그렇게 입궐하였습니다. 입궐 뒤 이항복은 임금 앞에서 날씨가 몹시 더워 나이든 재상들이 의관을 갖추기 어려우니 신을 벗도록 청합니다.

선조 임금은 매우 옳은 말이라 생각해 영의정부터 차례로 신을 벗게 합니다. 권율이 신을 벗지 못하고 찢찢매자, 임금은 자신 앞이라 그러는 줄 알고 내관을 시켜 신을 벗깁니다. 그러자 맨발이 드러난 권율은 도포 자락으로 발을 가리며 엎드려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이항복에게 속아 이리 되었나이다.”

임금은 크게 웃고, 여러 신하들도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시원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슬 퍼런 어전 회의에서 이 같은 해학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장인의 사위 사랑과 믿음, 사위의 장인에 대한 믿음, 임금과 신하간에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욱 자유로운 오늘날 이 같은 여유와 사랑의 믿음이 사라지고 경직된 분위기와 살벌한 인심, 불신이 만연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풍조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믿음은 물론이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도 없어지거나 상거래 식의 믿음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점점 기복신앙적인 이기주의식 믿음이 돼가고 인간은 더욱 영악스러운 계산적 모습을 보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사라지는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또다시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루카 17, 6)

예수님께서 그토록 크신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분께 신뢰와 믿음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옴은 구약성경에서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특별히 죄인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죄 없는 의인이 왜, 벌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간 의문에 대한 해답을 내리고자 하는 열망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옴기의 주제는 분명 의인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 역설적이게도 옴기의 시작인 사탄의 질문에 있습니다. 지상 여행을 마친 사탄이 천상 어전에 오르자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종 옴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 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없다.”(옴 1, 8)

그러자 사탄이 묻습니다.

“옴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같은 사탄의 빈정거림에 옴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슨 까닭 때문에 신앙을 가졌고,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습니까. 사탄은 분명 하느님께서 옴에게 무엇인가 세상사의 물질적 풍요를 주셨기에, 그 같은 까닭이, 이유가 있었기에 하느님을 경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역시 하느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겠지’라는 요량이 있기에, 그것에 희망을 걸고 세속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분명 하느님께서 옴에게 재산과 가정과 자녀들, 그 모든 물질적 풍요를 주셨기에 그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옴은 그 모든 것을 잃어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고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옴 1, 21)

이것이 신앙이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설령 오늘 내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내가 청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끝내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삶,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청할 요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 나의 행할 바를 끝까지 다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 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하고 말하여라.”(루카 17, 10)

매광하 신부 <춘천교구 계세마니피정의 집 원장>

단순하게 사세요

당신들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화려하고 현학적인 문구들을 써놓고 그것을 ‘지성’이라 부르죠. 하지만 정말 뛰어난 작가와 예술가, 교육자들은 간단하고 명쾌하며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사세요. 복잡함을 버리고 혼란을 제거한다면 인생을 즐기는 일이 단순하고 간단해질 거예요.

묵주기도 성월 기도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사목위원 임명

재정 차장: 유무열 (레오비노) 형제

그동안 수고해주신 이상희 새라피아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민자들을 위한 미사

▶일시: 10월 14일 오후 2시

▶장소: 해밀턴 주교자성당

이날은 본당과 공소에 미사가 없습니다. 공소와 성당의 모든 신자 분들은 이 미사에 모두 참석하여 주십시오.

◎ 첫영성체교리반모집

▶대상: 3 학년 이상 어린이

▶접수마감: 10월 31일

▶수업시작: 11월

▶문의: 장연희 세실리아 자매(519 580 1115)

◎ 구역 구역모임

▶1구역 10월 7일(일) 미사후 한택중형제집

▶2구역 10월 28일(일) 미사후 차후공고

▶3구역 10월 27일(토) 오후7시 박용대형제집

▶4구역 10월 27일(토) 오후7시 박순웅형제집

▶5구역 10월 27일(토) 오후7시 홀차근형제집

▶6구역 10월 20일(토) 오후7시 문혜라자매집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192@hanmail.net

◎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 실명(한글), 현주소, 전화번호,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택중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현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피정 안내

장소: 토론토 성 김안드레아 성당

일시: 10월 13일(토)

강사: 전달수(안토니오)신부

내용: 10시미사로시작,
스카폴라 착복, 꽃봉헌, 로사리오기도,
신부님의 강의: 영성생활이란 무엇인가?
성모신심의 근거, 성체신심

◎ 한 신자 한 단체 가입하기 운동

우리 본당에는 다섯 개의 레지오와 바네기도회, 성서 100주간, 울뜨레아, 성소후원회 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아직 한단체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인 신심을 위해서 신심활동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주 오후 4시30 부터 예수성심성당과 친 선축구시합이 성당 옆 공원에서 있습니다.

2007년 9월 헌금 정산	
주일헌금:	\$ 3287.25
성전건립:	\$ 250.00
감사헌금:	\$ 145.00
Total:	\$ 3682.25

2007-40

2007. 10. 7.

연중 제 27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 레

해 설 김작현 차주 해설 이민

화 답 송 | 오늘 너희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마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로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480) 믿음으로

봉 헌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성 체 (163) 생명의 성체여

퇴 장 (271) 로사리오기도 드릴 때

독 서

10월 7일 김근효

김순희

10월 14일 박재영

박경미

10월 21일 한택중

한재희

봉 헌

10월 7일 이우원

이희진

10월 14일 김근효

김순희

10월 21일 박재영

박경미

복 사

10월 7일 지홍

지현

10월 14일 위영

한희

2007년 9월 30일 헌금 재역

주일헌금: \$ 613.00

성전건립 \$ 90.00

감사헌금: \$ 145.00

Total: \$ 848.00